

## 「깐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9회)

朴魯哲

### (二)印度教 中心 思想 概觀

#### (4)誠律 簡要

『마하트마·깐디』의 禁慾主義로보면 耆那教(Jainism)의 五戒에 이르러서도 恰似한 點이 잇스니 印度教의 殺生을 禁하는것은 저 耆那教의 이른바

『나는 어느 大小의 生物이나 쏘는 어느 動不動의 生物의 殺害를 避한다. 내 自身에잇서 殺生하지 안 흘쭉 더러 他人에게 잇서도 殺生하지 안토록 하며 쏘는 他人의 殺生하는것도 承認하지 안는다. 나의 生이 잇는 限에는 나의 潔白함을 엇게 되나니『身』에 잇서 서도 『口』에 잇서 서도 『意』에 잇서 서도 윈갓 그 罪를 犯치안노라』

함과 大同小異하다고 본다. 印度教의 戒律중에 最高位를 占하는 『아히무사』(不殺生)은 곧『깐디즘』에 關한 非 暴力 受動的 思想, 敵을 愛로서 忍容하는 博愛思想 쏘는 全 人類를 平等視할 썬더러 牧牛 그바게 慈悲한 動物을 保護하는 愛他思想을 意味하는 것이다.

(『아히무사』의 信仰은 印度教戒律에 依하여 發展되니 만치 이미 受動的 抵抗主義의 一媒介者로서의 『빨시부-레지스탄트』(非暴力)을 發揮하였다고 본다. 이로 보면 『깐디즘』의 印度革命의 基礎는 원래 印度教正統派의 戒律에 根底를 두게 된다. 이러므로 『아히무사』는 非暴力主義와 同一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印度教에서 雜談을 禁함도 耆那教의 이른바의

『나는貪慾, 怖畏, 瞋恚, 歡樂으로 생기는 一切의 妄語를 避한다. 나는 潔白하다 몸 썬지 潔白하다』

와도 近似한것이라든지 쏘는 그 淫慾을 禁함에 잇서 서도 耆那教의 五戒중에 『나는 神에 對해서나 人에 對해서나 쏘는 獸에게 對해서나 同一한 態度로 一切의 淫慾을 避한다. 나는 慾으로부터 脫離한다』 함과도 類似한 點이

보인다. 印度敎에서 禁慾을 最高의 要件으로 삼는 것과 가티 耆那敎에서도 大部分이 禁慾에 注重하여 그 十二年間의 森中苦行으로서 解脫의 要項을 삼아 왔다. 이 五戒에 關한것은 耆那敎의 三寶(正智, 正信, 正行)중 正行에 對한 不殺生, 不偷盜, 不妄語, 三業淸淨, 小欲知足 等이니 이는 佛敎의 五戒를 模倣하였다는 말도 잇스며, 또는 佛敎以前의 律法上 五重惡을 약간 改造한 것으로 보는 者도 있다. 耆那敎의 戒律로 보면 거의 婆羅門敎及 佛敎에 類似한 點이 만을 쏘더러 現代의 印度敎에 잇서서 彷彿한 點이 만으니 例컨대 印度의 國產品으로서 儉朴하게 입고 粗率하게먹는 (惡衣惡食)것이나, 또는 사람의 權勢나 地位나, 武力이나, 殺傷이나, 壓制나, 富貴나를 두려워말고 오직 神만을 두려워하라는 『物畏』나 누구든지 利를 貪치말고 오직 正當한것만을 지켜 가면 何等의 貧富의 差別이업다는 『不偷盜』라든지 結婚할지라도 獨身生活를 固執하여 淫逸치말자는 『禁慾』이라든지 自己나 他人이나 猨畜 慈悲의 動物를 屠害치말자는 『不殺生』이라든지 그 맞게 飲酒, 妄語, 邪淫, 女色, 肉食 等에도 共通되는 點이 만타고 본다.

『산티』는 또 이르대

『印度敎徒는 懺悔奉獻에 依하여 또는 自己淨化에 依하여 自己犧牲에 依하여 牧牛를 保護하게 된다. 이럼 으로 다른 宗教보다도 印度敎가 가장 明白히 區別되는 點은 곳 四階級의 制度보다도 오히려 그 牧牛를 保護하는대이다』라고 하였다. 印度敎에서 牧牛를 四種姓과 함께 貴重이 여김은 自古로 印度敎先民들이 牧牛를 農牧은 象徴하는 神이나 진배 업시 崇仰하든 緣由로서 그러함이라. 불행이 愚民중에 牧牛를 輕히여기는 者잇스면, 그 報應으로 因하여 印度의 農業이 蔚興되지 못 할쏘더러, 또는 神에게 罪를 어더 神罰를 맞게 된다는 傳說이 잇는 이만치 이가튼 牧牛保護의 구든 信條로 貫徹하여야와 다고 본다. 이리하여 만일 信徒중에 牧牛를 屠害하는 者잇스면, 이는 破門의 悲境에 이르러 全印度敎에 不美한 影響을 끼친다 하여 그 屠害한 信徒를 印度敎의 誠律에 依하여 嚴罰한다는 敎例가 잇섯다. 이럼으로 그들의 信仰을 더 敦篤하기 爲하여 또는 그 精神을 潔白하기 爲하여 牧牛를 保護하는바니, 만일 罪를 엇게 되면 그 허물로 因하여 다 悔와 犧牲의 奉獻으로서의 祭物이 되지 안 흘수 업는 것이다. 다음으로 婆羅門種姓 (作歌者를 意味한것)에 關한 印度古仙의 讚歌一節를 鈔譯하면

『보시라 나는 作歌者(婆羅門僧侶)오. 내아바지는 醫師요. 내어마니는 石臼에 쌀을 씻는 이어니 우리들은 각각 색다른 직분을 가지고 잇서라. 『암소』가 주릴 새 牧場을 혜매는것처럼 우리도 역시 살미천 (財産)을 爲하여 그대에게 敬拜드리노니 아아—『소마』(酒神soma)그대여 『인드라』 (降雨Indra)에게 청이

나 들어보소라』한 祈願歌가 잇섯다.